아르센 뤼팽의 어느 모험

Une aventure d’Arsène Lupin

모리스 르블랑 (Maurice Leblanc, 1864–1941)

1911년 발표 · 프랑스어 원문 번역 · 2026-06-07

GB10 로컬 vLLM (Qwen3.6-35B-A3B) AI 번역

책 정보

원전

Maurice Leblanc, « Une aventure d'Arsène Lupin » (1911)

저자

모리스 르블랑 (Maurice Leblanc, 1864–1941)

원전 출처

fr.wikisource — Une aventure d'Arsène Lupin (퍼블릭 도메인)

번역

GB10 로컬 vLLM (Qwen3.6-35B-A3B)

발행

sosig.shop/book · 2026-06-07

번역 정책

> 프랑스어 원문에서 곧장 옮겼으며, 가독성을 우선해 요즘 독자가 쉽게 읽도록 다듬되 20세기 초 신사 도둑 이야기 특유의 위트와

> 긴장을 살렸습니다. 고유명사·핵심 표현은 작품 내내 일관되게 옮겼습니다. AI 번역의 한계상 어조 흔들림·세부 오역 가능성이 있으니, 정식 번역본의 대체가 아닌 "쉽게 읽는 한 편"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등장인물

아르센 뤼팽

딤블발, 조각가, 55세

마레스코, 국가안전부 부장

공범

경찰관

국가안전부 요원 및 경찰관

마르셀린, 딤블발의 딸

무대는 조각가 작업실이다. 오른쪽 앞쪽에는 반쯤 가려진 모델용 세면대가 있는 가구가 있고, 배경에는 메인 도어가 있다. 도어가 열리면 현관과 입구 문이 보인다. 왼쪽에는 두 개의 문이 있고, 오른쪽 맨 앞에는 자물쇠와 안전 사슬이 달린 무거운 문이 있다. 작업실에는 창문이 없고, 경사진 천장 유리창이 있다. 책상, 스툴, 석재 조각, 초안, 이젤, 가죽 의자 몇 개, 모델용 옷과 망토, 액세서리가 있다. 책상 위에는 전화기가 있고, 큐피드 동상이 있다. 커튼이 올라갈 때 무대는 비어 있고, 전등은 꺼져 있다. 배경의 입구 문이 갑자기 열린다. 마르셀린이 발레복 차림으로 들어오고, 아버지가 뒤따른다. 딤퀴발, 마르셀린

마르셀린, 숨을 헐떡이며. – 계단에 아무도 없었어?

딴블발, 현관문을 쇠사슬과 자물쇠로 굳게 잠그며. – 아니, 아무도 없었지.

마르셀린. – 어쨌든 우리 뒤를 쫓아온 사람이 있어. (불을 켠다.)

딴블발. – 대체 누가? 세상에나!

마르셀린. – 발통-트레모르 부인의 문 앞에서 누군가 우리를 엿보고 있었어.

딴블발. – 마르셀린, 또 그 불필요한 공포심이라니.

마르셀린. – 불필요하다니요! 왜 하필이면 이 목걸이를 내게 입히려는지요? (그녀는 안쪽 왼쪽 문으로 방으로 들어가 외투를 벗고 다시 돌아온다.)

딴블발. – 뭐라고! 내 딸이여, 내 이름을 유명하게 만들어준 역사적인 목걸이잖아. "딴블발? 아, 에메랄드 목걸이를 딸에게 선물하는 조각가라고!" 그 덕분에 내 최고의 걸작인 '큐피드' 조각 의뢰까지 받았던 거라고!

마르셀린. "그건 제 것이 아닙니다……"

딤블발. "뭐라고? 내가 브레브 공작부인한테 이 목걸이를 담보로 만 프랑을 빌려줬단 말이야. 정해진 날짜에 갚지 못했지. 그녀가 불행할 뿐이야."

마르셀린. "하지만 그건 열 배는 더 비싼 값이 나가는 거예요."

딤블발. “그게 더 내겐 좋겠지.”

마르셀린. “아빠, 그런 게 합법인지 모르겠어요.”

딤블발. “아, 그렇구나. 담보 대출이라니…… 뭐랄까, 딸아, 요즘은 예술만으로는 먹고살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지.”

마르셀린. “그건 아빠가 결정하실 일이에요. 하지만 아빠가 그 목걸이를 집에 두고 있으면, 저는 잠도 못 자요. 언젠가 도둑이 들지도 모르잖아요……”

딤블발. “내일 크레디 리오네에 맡기는데.”

마르셀린. “그런데 만약 오늘 밤에 누가 온다면요?”

딴블발. “왜 하필 오늘 밤이야?”

마르셀린. “오늘 아침, 당신의 모델이었던 그 늙은 러시아인이 당신이 그 장롱에 무언가를 넣는 것을 똑똑히 봤대요.”

딴블발. “아, 그럼 다른 곳에 두지. 어디든 좋아. 정작 귀중품을 숨기지 않는 장소로. 저 꽃병 어때?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야.”

그는 목걸이를 꽃병 속에 넣었다.

그때 전화기가 울리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다시 한번, 전화기가 울렸다.

딴블발, 낮게 속삭였다. “전화기야.”

마르셀린. “그래, 나가 봐요, 아빠.”

딴블발. “자정이 훨씬 지난 새벽 두 시에 전화라니.”

그는 재빨리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네, 나야. 경찰청? … 뭐라고? … 정말로요? … 여보세요? … 후, 끊어졌네!”

마르셀린. “무슨 일이에요?”

딤블발은 수화기를 거치며 말했다. “안전국에서 연락이 왔어. 오늘 밤 도둑이 들까 봐 걱정이라고.”

마르셀린은 비명을 질렀다. “목걸이요! 보셨어요? 정말 끔찍한 일이네요. 게다가 해고시킨 하인들까지!”

딤블발이 대답했다. “마레스코 부서장이 직접 지휘하는 형사 여섯 명이 곧 도착할 거야. 그 사람과는 내가 잘 알고 지내거든.”

마르셀린이 걱정했다. “만약 너무 늦게 도착하면 어쩌죠?”

“걱정 마. 내가 여기 있잖아. 게다가 우리 집에는 우리 세 가족만 살고 있어.”

“하지만 모델들이 쓰는 전용 출입구는요?”

딤블발은 열쇠고리와 자물쇠를 다시 한번 확인한 뒤 말했다. “열쇠를 가져가.”

마르셀린이 물었다. “무슨 짓을 하려는 거예요?”

딤블발은 꽃병을 들어 올리고 딸의 방으로 향했다. “목걸이를 내가 가져갈게.”

마르셀린이 놀라며 물었다. “내 방으로요?”

딤프발. “응, 네가 올 때까지는 내가 같이 있을게.”

마르셀린. “싫어요. 저기 놔두세요.”

딤프발은 그릇을 서랍장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맞는 말이야. 더 좋은 숨길 곳도 없지. 사람들은 이 곳 말고는 다 뒤질 때까지 뒤질 거야. 나는 안심해도 돼.”

마르셀린. “나한테는 상관없어. 내 방에는 없으니까.”

그가 전등을 끄고 각자 방으로 들어갔다. 무대는 잠시 비어 있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온 아름다운 보름달빛이 공간을 비추고 있었다.

그때, 위쪽에서 은은한 소리가 났다. 유리창 한 장이 살짝 들썩이며 굵은 밧줄이 천천히 내려왔다. 밧줄은 흔들리다가 바닥에서 두 미터 위쯤에서 멈췄다. 그리고 곧이어 그림자 하나가 위로부터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왔다.

뤼팽은 전구를 찾느라 바빴다.

“전구 좀 주시게. 빛이 좀 필요해.”

그가 불을 켜자, 방 안이 환해졌다. 뤼팽은 아파치 복장으로 분장하고 있었다. 긴 블라우스에 모자를 쓰고, 부채처럼 펼쳐진 붉은 수염을 자랑하고 있었다. 그는 세면대 위에 놓인 손거울을 들어 자신의 모습을 살펴봤다.

"따뜻한 물주머니라도 든 것 같은데? 너도 나랑 똑같이 생겼네. '아르수유'라니. 아르수유 뤼팽."

그가 갑자기 외쳤다.

"오! 권총이군. 내가 내 권총을 잊어버렸는데, 딱 좋다."

그가 또 물었다.

"이건 뭐지? 분무기?"

동조자가 창살 사이로 반쯤 몸을 내밀며 말했다.

"뤼팽!"

"뭐?"

"당신 미쳤어요!"

"왜?"

"불빛 때문에요!"

"내가 보기엔 불편한가?"

"네."

"그럼 눈을 감으세요."

"하지만…"

"입도 다물어."

"보스…"

"아, 그러니 그 사다리나 잘 봐, 자크."

"왜 나를 야곱이라고 부르나요?"

뤼팽이 사진을 들여다본다.

"너라면 이해 못 할 거야."

그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리며 서랍장으로 걸어간다.

"아, 그렇구나. 바로 발통트레모르 발에서 본 그 소녀였군. 정말 죄송합니다, 미스. 일하는 자의 겸손한 제복을 입어야 했으니까요. 불쌍한 아이, 이제 그 에메랄드를 빼내야겠네요. 아, 버터 값이 이리 비싼 줄 알았더라면."

그는 초상화를 서랍장 위에 내려놓는다.

"자, 노 러시아인의 도면을 보자."

그는 손가락으로 위치를 가리킨다.

"현관. 소녀의 방으로 이어지는 복도. 그리고 피해자의 방. 여기가 모델들의 계단이지."

화분을 가리키며 말한다.

"저기가 화장실. 그리고 저기가 바로 서랍장. 다 괜찮아."

그는 주머니에서 열쇠 뭉치가 든 주머니를 꺼낸다.

"서랍장, 세 번째 서랍이라고 노 러시아인이 말했지."

"네, 보스."

"자, 시작하자. 에메랄드 도난 사건, 5막극. 작곡은 뤼팽."

"서곡은… 완성된 아르센 식 음표로, 4박자. 하나, 둘, 셋, 넷."

장식이 달린 가구가 열렸다.

"자! 꽃잎처럼 부드럽게. 네가 이걸 찾아내려면 50년은 걸릴 거야. 아, 정말 감탄스럽군."

"무슨 말씀이세요?"

"세 번째 서랍이 비어 있군."

"다른 서랍은요?"

잠시 멈추었던 뤼팽이 갑자기 화가 난 듯 방 안을 돌아보며 말했다.

"더러운 놈! 맞아. 우리가 이렇게 발을 구르고 목숨을 걸었는데, 결국 빈손이군."

"그럼 도망치죠."

사다리에 한 발을 올렸던 뤼팽이 잠시 주저하더니 말했다.

"아니, 아직은 아니야. 너무 억울해."

그는 책상 서랍을 더듬으며 중얼거렸다.

"저 자식, 반드시 여기에 숨겨놓았을 거야."

"우리 곧 잡힐 거야."

"바보 같은 소리!"

뤼팽은 잠시 생각하더니, 단호하게 말했다.

"야코브!"

"네, 보스?"

"엘리베이터를 위로 올려."

"뭐요?"

"내 말대로 해."

사다리가 치워졌다.

“그리고?”

“기다려. 대로변을 주시하고. 내가 필요하면 휘파람을 불 테니, 알아서 해.”

뤼팽은 스위치 쪽으로 걸어가 불을 끄며 속삭였다.

“세 번 치면……”

그는 마루바닥에 세 번 두드렸다.

“막 내립니다!”

그리고 커튼 뒤로 숨어 틈새로 밖을 내다보았다. 방 문이 열렸다. 댐블발이 나타났다. 그는 불안한 기색으로 머리를 내밀더니, 팔을 뻗어 불을 켰다.

댐블발은 문턱에 서서 아침옷을 입은 딸에게 말했다.

“아무도 없어.”

마르셀린은 물었다.

“아빠, 잘 보세요.”

딤블발이 다가왔다.

"내가 말했잖아, 아무도 없다고."

마르셀린이 물었다.

"그럼 문은요?"

딤블발은 무대를 가로질러 현관 쪽으로 걸어갔다.

"내가 말했잖아, 아무도 없다고."

마르셀린이 말했다.

"아, 그 목걸이 말이에요…"

딤블발은 서랍장 위에 놓인 꽃병을 들어 올렸다.

"그건 괜찮아. 걱정할 필요 없어.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거든."

그가 목걸이를 가리키고는 다시 제자리에 놓았다.

"아, 그리고 제발, 좀 진정해!"

두 사람은 나갔다. 딤블발이 전등을 끄며 말했다.

"네가 결국 나를 놀라게 할 거야!"

뤼팽이 전등을 켜고 서랍장 쪽으로 걸어갔다. 그는 꽃병을 들어 올렸다가 목걸이를 살펴보았다.

"참으로 친절한 분이시군. 벌로, 그에게 꽃병과 꽃을 남겨두자."

그가 목걸이를 주머니에 넣더니, 다시 삼각대 근처로 돌아와 동료를 불렀다.

"이봐!"

잠시 멈췄다.

"뭐지? 이상한 소리야… 이봐! 야코브!"

동조자가 고개를 내밀며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에이, 사장님!"

"너 어디 있었어?"

"다른 쪽이에요. 아랫층에서 누군가 초인종을 눌렀어요. 사내 여섯 명쯤 되는 것 같았어요."

"빨리, 승강기 타."

동조자가 밧줄을 놓아주었다.

"제발 재촉 좀 해봐. 소리가 들려."

"그래?"

그때 현관문에서 초인종 소리가 났다.

"주의해요, 사장님. 밧줄을 놓았어요."

"이미 늦었어. 얼른 꺼져."

"하지만 사장님은?"

"내가 알아서 할게. 얼른 사라져."

그가 전등을 끄자, 창문은 그대로 열려 있었다. 뤼팽은 가림막 뒤에 숨었다. 딤프르발이 방에서 나와 전등을 켰다.

"아니, 소리가 난다면 경찰이겠지. 누가 있나? 누가 있나?"

한 목소리가 대답했다.

"마르스코, 안전부 차장입니다."

딩블발이 문을 닫으며 말했다.

"아, 이제야 숨이 막히지 않네."

그는 무대를 가로질러 뒤쪽 문을 열고 현관으로 들어갔다.

"여기요… 곧 도착합니다…"

뤼팽은 현관 문턱까지 달려가 밖을 내다보았다.

"마르스코, 부서장이라니… 나는 또 한 번 당한 셈이군."

그는 낮은 목소리로 불렀다.

"야곱… 야곱…"

그는 식탁을 밀어내고 그 위에 석비를 올렸지만, 다락창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었다. 그는 중얼거렸다.

‘잡아라!’

‘보석을 다시 돌려놓을까?’

잠시 망설이던 그는 뒤쪽 문으로 다가가 자물쇠를 채웠다.

그때 거대한 소음이 들리며 문짝이 두 개 모두 흔들렸다.

“다들 없어요! 문 부수지 마시고, 자물쇠 수리공 좀 부르세요!”

그 소리에 뒤에서 누군가 비명을 지른다.

순식간에 뤼팽은 작업복과 모자를 벗어 테이블 위에 던진다. 석비 바로 아래, 겉보기엔 아무렇지도 않게 말이다. 그리고는 가림막 뒤로 숨어든다.

방 안으로 부하들과 형사들이 들이닥쳤다. 딴블발이 전등을 켠다.

가림막 뒤에 숨어 있던 뤼팽은 이제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다. 그는 붉은 수염을 떼어내고, 차분하게 앉아 분을 지우고 있었다.

딴블발이 당황한 목소리로 외친다.

“저 남자가 어디 있단 말인가?”

부하가 대답한다.

"숨어 있죠."

"그래? 마르스코, 내 방부터 찾아봐. 저 남자가 숨을 곳은 거기가 다야. 먼저 들어가."

부주임이 문을 열며 말했다. "아무도 없네요. 그리고 이 가림막 뒤는요?"

그가 무대 안쪽으로 걸어가자, 뤼팽이 경계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다. 하지만 부주임은 곧 테이블과 석비를 발견했다.

"아니, 여기는 아니군… 잠깐만요."

딤펄발이 말했다. "말도 안 돼."

부주임이 되물었다. "하지만 이 테이블과 이 삼발이 석조물… 분명합니다. 그는 지붕으로 도망쳤군요."

딤펄발이 물었다. "그런데 어떻게 들어왔다는 말인가?"

부주임이 대답했다. "똑같은 경로로요."

딤펄발이 말했다. "그건 너무 높은 곳이야!"

부주임이 말했다. "보세요. 그가 동료를 둔 게 분명합니다. 다락창이 아직 열려 있잖아요. 지붕 위로 올라갈 수 있겠어요?"

딤펄발이 말했다. “다시 내려가서 관리인에게 물어봐야겠군. 서비스용 계단을 이용했는지 확인해야 해. 우리 상대는 이미 멀리 도망갔을 거야… 설령 그가 정말로 그쪽으로 왔다면 말이다.”

보조 요리사. “무슨 말씀이세요, 친구. 당신 눈이 멀었나 봐요. (가운을 가리키며) 이것요? 이게 뭐예요? 당신의 거예요?”

딤블발. “아니요.”

보조 요리사. “당연하죠. 우리 범인의 가운이에요… 더 잘 도망치려고 버린 거죠. 그리고 모자도요. 구 러시아인이 알려준 특징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딤블발. “무슨 말씀이세요, 그 러시아인? 제 모델 말인가요?”

보조 요리사. “네, 그자가 골목 물웅덩이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어요. 취해서 죽어라 술에 취한 상태였죠. 그래서 잡담을 늘어놓았답니다.”

딤블발. “그럼 동범인 셈이군요?”

보조 요리사. “우리가 며칠째 찾고 있는 자의 동범이죠… 붉은 수염을 기른 남자요. 아주 위험한 악당이지요. (뤼팽의 적절한 제스처) 러시아인으로부터 들은 바로는, 오늘 밤이 범행의 날이에요. 목걸이를 훔칠 계획이랍니다.”

딤블발, 차분하게. “아니요.”

보좌관. “하지만… 에메랄드 목걸이가 서랍장 속에 들어 있죠.”

딤블발. “그 서랍장 말인가요? 물론이죠.”

보좌관.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딤블발. “아니요. 그렇게 멍청하진 않아요…”

보좌관. “하지만 당신에게는 에메랄드 목걸이가 있잖아요.”

딤블발. “네… 정말 멋진 목걸이죠.”

보좌관. “어디에 놔뒀습니까?”

딤블발. “안전한 곳, 어떤 수색도 미치지 못할 곳에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보좌관. “그럼 대체 어디에?”

딤블발. “당신 코앞에요.”

보좌관. “딤블발!”

딤블발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 이 꽃병 안에요. 아주 간단하게요. 절도범이 그곳을 의심할 리 없잖아요.”

그가 꽃병을 쳐다보았다. 깜짝 놀란 표정이었다.

“아!”

보좌관. “무슨 일이에요?”

딤블발. – 도둑맞았어! (그는 안락의자에 털썩 주저앉는다.) 저놈을 쫓아라… 잡아야 해… (그는 다시 일어나 딸의 방으로 재촉하듯 뛰어간다.) 마르셀린! … 목걸이가!

마르셀린, 나타나며. – 정말요?

딤블발. – 뭐? 내가 충분히 경고했잖아… 네가 그 목걸이를 원했지.

마르셀린. – 하지만 누가 훔쳐갔다는 거예요?

딤블발, 점점 더 흥분한 목소리로. – 수염 낀 남자… 붉은 수염을 가진 놈… 깡패야… 살인자라고.

소수석. – 진정하십시오, 부디… 조르주… 뒤푸, 저 위로 올라가 봐.

딤블발. – 그래! 저 위로 올라가! 아, 그가 거기서 기다릴 거라고 생각하냐?

소수석. – 그런데…

딤블발, 분노에 발을 구르며. – 아니야! 다른 집은 어때? 드루 백작의 저택, 지붕들이 이어져 있어.

소수석. – 알겠소. 가자!

딤블발, 평소와 똑같은 태도로 말했다. “호텔 정원은요? 그는 담장을 넘어올 거예요.”

보조 지휘관. “우리가 그보다 먼저 도착할 수 있습니다.”

딤블발, 평소와 똑같은 태도로 말했다. “아니요, 광장 쪽으로 큰 우회로를 돌아야 해요. 아, 정말 끔찍하네요!”

보조 지휘관. “이 문은……”

딤블발. “제 모형이 놓인 계단 쪽입니다.”

보조 지휘관. “어디로 가는 건가요? 광장 쪽으로요?”

딤블발, 평소와 똑같은 태도로 말했다. “아니요, 광장으로 갑니다. 마르셀린, 열쇠를 줘.”

마르셀린. “제 방에 있어요.”

딤블발. “아, 아니야. 굳이 갈 필요 없겠군.” (그는 다시 안락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시간이 더 걸릴 거야…… 아, 어쩐지 좀 더 나은 방법이 있는 것 같아, 모르겠네, 아, 그는……”

보조 지휘관이 부하들에게 명령했다. “바르니에, 광장으로 가. 출구 아래에 있어라. 듀퐁, 너는 네무아르 거리 경찰서로 달려가서 형사 여섯 명을 데려와라. 그는 분명 동조자가 있을 거야.”

딴블발이 몸을 일으키며 다락방 구멍 창을 가리켰다.

“만약 그 녀석이 저쪽에서 다시 나타난다면…… 내 딸아.”

보좌관이 말했다.

"아,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이지만, 미모자시여. 방에서 절대 움직이지 마십시오. 누구에게도 문을 열어주지 마세요. 오직 아버지와 저에게만요. 더구나……"

그가 옆에 있던 형사 한 명을 돌아보며 말했다.

"곤트랑, 여기서 기다려. 필요하면 쏴. 우리가 상대하는 건 아주 위험한 놈이니까."

"디믈발. 그놈은 악당이자 살인자야. 빨리, 마레스코. 먼저 나가. 내가 자물쇠를 채울게."

모두 빠져나갔다. 곤트랑만 남았다.

그동안 뤼팽은 평온하게 앉아 있었다. 얼굴을 닦고, 손톱을 깎고, 가짜 수염을 빗어 주머니에 넣었다. 그 후로는 화장실 용품들을 가지고 노렸다. 향수 병, 분무기, 고데기 같은 것들 말이다.

이제 그는 힘차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행동 준비를 끝낸 것이다.

형사가 뒷문으로 가서 문을 잠그고 있었다. 그는 무대 앞으로 걸어 나와 장소를 살피며 모델들의 계단 쪽으로 향했다. 가리개를 지나 다시 무대 중앙으로 돌아왔다.

뤼팽은 형사와 동시에 가리개를 돌아갔다. 형사는 그를 보지 못했다.

제자리로 돌아온 뤼팽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러고는 발끝으로 살며시 형사 쪽으로 다가갔다. 형사는 담배를 말고 있었다. 뤼팽은 가리개 뒤에서 주워 온 수건을 형사의 입에 덮어씌웠다. 그리고 그를 쓰러뜨린 뒤, 얼굴에서 불과 20센티미터 떨어진 곳에 권총을 겨눴다.

"손 들어, 꼼짝도 마. 너에게 해는 안 가."

형사는 몸부림치며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뤼팽은 즉각 입을 막았다.

"으으, 조용히 해."

뤼팽은 주머니에서 작은 병을 꺼냈다.

"클로로포름 한 방울. 정신을 맑게 해줄게."

마취제 냄새를 맡은 형사는 이내 잠들어 버렸다.

"좋아, 착한 아이군. 벌로 냄새 좀 뿌려주지."

뤼팽은 화장실 스프레이를 다시 꺼내 형사身上에 뿌렸다.

"잘 자."

그는 형사를 굴려 딤블발의 방으로 옮긴 뒤 문을 잠그고 다시 속삭였다.

"가라, 잘 자."

그리고는 재빨리 일어나 뒤쪽 문을 열고 현관문 쪽으로 달려가 열쇠를 훔쳐내려 했다. 하지만 그는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이며 중얼거렸다.

"아, 또 이럴 수가! 내 도구들을 다 가져갔네, 도둑놈들아."

그는 다시 돌아와 작업실 문을 닫고 잠시 생각에 잠긴 뒤, 모델실 문 쪽으로 향했다.

"안 돼… 열쇠가 필요해…"

그는 갑자기 멈춰 서서 스스로에게 물었다.

"아니, 그런데 왜? 잠겼잖아. 망했네. 아, 정말로?"

그는 한동안 안절부절못하며 오가다, 결국 테이블 앞에 앉았다.

"자, 보자, 뤼팽…"

그는 옆에 놓인 전화를 보고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모델실 출구를 바라보다가 마르셀린의 문도 확인하며 중얼거렸다.

"그래, 분명해. 하지만 열쇠가 필요해."

잠시 멈춘 뒤 그는 다시 말했다.

"아무튼, 왜 안 되지?"

그는 시계를 확인했다.

"15분 남았어. 충분해."

그리고는 수화기를 들어 낮은 목소리로, 그러나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했다.

"뭐라고? 안 돼?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

그는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다.

"감시원, 그래, 감시원을 원해."

잠시 침묵이 흘렀다.

"감시원? 캐롤라인, 너지?"

그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변했다.

"잘 들어, 캐롤라인. 절대 말하지 마, 신의 이름으로! 내 말만 들어."

"일단 그릇을 내려놓고. 택시를 타. 본부로 가."

"버나드와 그리피네를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들에게 내가 디믈발 조각가 아파트에 포위됐다고 전해."

"현장 감시 형사들이 있고, 광장 쪽 모델용 계단 아래에도 다른 형사들이 있어."

"그들을 피우고, 나를 기다리게 해."

"십 분 안에."

"아! 본부에 다른 동료들이 있다면 모두 불러."

"십 분 안에 다 모여."

그는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시계를 확인한 뒤 침실 문으로 향했다. 귀를 기울이더니, 급하게 문을 두드렸다.

"빨리, 문 열어. 마스코 부장입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긴급한 일입니다. 모델용 계단의 열쇠를 가져오세요."

문이 열리자 마르셀린이 나타났다. 그녀는 숨 막히는 비명을 지르며 모습을 드러냈다.

뤼팽이 거친 authoritative 어조로 외쳤다.

"입 다물어! 바로 나야!"

그녀가 문을 닫으려 하자 발로 막아섰다. 그리고 전전 떨리는 그녀를 무대 안으로 끌어들였다.

마르셀린이 물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말하지 마. 기다려. 이해하려 애쓰지 마. 내가 설명해 줄게."

마르셀린은 두려움에 떨며 내려왔다.

"무엇보다도, 절대 두려워하지 마. 당신에게 해를 끼치려는 의도는 전혀 없소."

마르셀린이 말했다.

"하지만 도대체, 선생님."

뤼팽. – 더 낮게 말씀해 주십시오. 누가 들으면 안 됩니다. 저를 들켜도 안 되고, 당신을 들켜도 안 됩니다. (그는 뒤쪽 문을 닫으러 간다.) 아주 중대한 이유에서입니다. 제가 당신 곁에 있고, 당신을 만나러 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안 됩니다. (더 급하게, 마치 마침내 설명을 찾은 듯이.) 네, 당신을 만나러 왔습니다! 오늘 밤, 당신은 발통-트레모르의 발에 참석했죠. 저는 당신을 봤습니다. 오,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당신을 어디에나 따라다닙니다. 경마장에서도요.

마르셀린. (놀라워하며 그의 말을 듣는다.) – 경마장에서도요? 하지만 저는 거 안 가요.

뤼팽. – 가요, 네, 가게요. 백화점에서의 경매 같은 곳요. 그리고 당신이 연극에 갈 때마다요.

마르셀린. – 절대 안 가요.

뤼팽은 끊임없이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말했다.

"제발, 제 말을 끊지 마십시오. 우리는 딱 10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오래전부터 당신과 이야기할 기회를 노려 왔습니다. 그 이상 오래 말입니다."

"오늘 밤 발통트레모르 가의 연회가 있었죠. 그분들은 제 친구입니다. 정말 매력적인 여성이셨어요. 매일 클럽에서 그녀의 남편과 제가 함께하고 있고요."

마르셀린이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과부인이잖아요."

뤼팽, 매우 급하게. – 네, 남편이 죽은 뒤부터요… 하지만 그전에는 그가 저를 소개시켜 줄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당신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뤼팽이 그녀에게 다가가며) 오! 당신은 저를 볼 수 없었어요… 저는 당신을 피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정말로 매우 수줍음이 많아요.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여기… 그리고 무작정 이곳에 왔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밤 도둑맞는 현장 한복판에서 제가 잡힌 이유죠… 저는 당신을 보고 싶었어요… 당신과 말하고 싶었고, 그러자마자 떠나고 싶었어요. 네, 바로 떠나고 싶었죠… 그렇지 않나요, 저를 만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는 이 출구로 떠날 거예요… 유일한 자유로운 출구죠… 그리고 바로… 바로… 이해하시죠, 네?

마르셀린, 의심스럽게 그를 관찰하며. – 아니요… 아니요… 저는 이해하지 못해요… 저는 아버지와 함께 들어왔어요.

뤼팽. – 그러면 어때요?

마르셀린은 의심을 키우며 물었다.

“우리가 문을 닫았어요…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들어오셨죠?”

뤼팽은 태연하게 대답했다.

“아무튼,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마르셀린이 물러서며 고집을 부렸다.

“아니에요, 정말에요… 당신은 그 남자와 함께 왔잖아요.”

뤼팽은 분개하는 척했다.

“수염이 붉은 그 남자 말인가요?”

마르셀린이 급히 뒤로 물러섰다.

“저를 놓으세요… 저는…”

뤼팽이 그녀를 급하게 붙잡았다.

“어디 가려는 거야?”

마르셀린은 말도 못 하고 멈춰 섰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는 자신을 가다듬고, 부드럽게 그녀를 다시 자리에 앉게 했다.

“아,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는 슬쩍 시계를 들여다보며 중얼거렸다.

"젠장."

그리고는 다시 말을 이었다. 말은 무작정 늘어놓는 듯했고, 그는 자신의 말에 귀 기울이지도, 모순되는 말도 서슴지 않았다.

"마르셀린이 뒷문으로 돌아가려다 붙잡힌 거예요."

"아니, 아니요. 걱정 마십시오. 저는 그녀의 동조자가 아닙니다. 오, 절대요! 저런 악당이라니! 세상에 가장 비참한 자들 중 하나죠. 하지만 저는 그녀의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와서 기회를 노렸죠."

"저는 당신에게서 무언가 가져가고 싶었습니다. 목걸이는 아닙니다. 그 남자가 가져갔어요. 저를 믿으십시오. 다른 것이었습니다. 무엇이든 좋았습니다. 당신의 초상화요. 네, 맞아요. 제가 가져왔어요. 여기 있습니다. 돌려드립니다."

"보시죠. 저는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세요. 보세요."

그녀는 조금씩 안심하며, 억지로라도 그의 말을 듣게 되었다. 반면 뤼팽은 여전히 딴전에 가까운 태도로, 맡은 역할과 목표에 다다르려는 조급함이 섞인 쩔쩔매는 목소리로 계속했다.

"제발, 그러세요. 안 그러면 제가…… 듣지 말아야 할 말을 하게 될 테니까요. 저는 침묵하려 했지만, 도무지 참을 수가 없어요.

사랑해요. 당신만 생각해요. 당신이 그 사실을 알고, 저의 말을 들어 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요.

모든 것을 고백합니다, 제 사랑. 끝없는 괴로움과, 다시는 당신을 볼 수 없다는 슬픔, 그리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전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으니까요. 이제 그 끔찍한 순간이 다가왔으니까요.

아! 저는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을 사랑해요. 열쇠를 주세요!"

마르셀린은 그 말에 취해 있었다. 그 목소리의 음색, 이 장면의 기이함, 모든 것이 그녀를 뒤흔들었다. 현실 감각을 잃고 어지러움을 느끼는 순간이었다. 거의 본능적으로, 그녀는 알지 못한 채 열쇠를 건넸다.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승리의 미소를 띠며 일어난 뤼팽이 속삭였다.

"호, 이제 됐군."

그는 문쪽으로 걸어갔지만, 열쇠를 꽂으려던 순간 몸을 돌려 뒤를 돌아보았다. 마르셀린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서 있는 것이 보였다.

뤼팽은 발걸음을 멈추고 잠시 생각에 잠긴 뒤, 그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직감했다. 그리고 역시 감격에 찬 표정으로 그녀에게 돌아섰다.

"무슨 말씀도 하지 마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어색한 자세로 선 뤼팽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인생이라는 게… 당신도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를 여기저기로 밀어붙이는 circumstance들이 있거든요. 특히 왼쪽으로, 왼쪽으로… 그러다 어느 날, 당신처럼 나를 응시하는 두 눈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그때면…”

마르셀린이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다.

“가세요!”

뤼팽. “당신의 동정을 훔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영웅적인 연인처럼 보일까 봐 두려웠죠. 제가 한 말은 모두 거짓입니다. 나쁜 역할을 연기했을 뿐이죠.”

마르셀린. “가세요! 빨리 가요!”

뤼팽. “아, 인생이란 참으로 어리석군요. 당신을 바라보니 저는 정직한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떠날 때군요.”

그는 모델들의 계단 쪽 문쪽으로 걸어가더니, 갑자기 멈춰 서며 말했다.

“이미 늦었어요!”

마르셀린. “무슨 말씀이세요?”

뤼팽. “보시죠! 이 열쇠를 얻기 위해 제가 거짓말을 했다고 너무 탓하지 마세요. 당신에게 열쇠를 건네는 그 아름다운 제스처가 저를 진심으로 만들었죠. 진심은 사치품이니까요. 여기 당신의 열쇠입니다. 이제 저는 이 열쇠를 쓸 수 없게 됐습니다.”

마르셀린. (걱정스러운 어조로) “당신 미쳤어요! 아직 시간이 있어요…… 아, 신이시여! 정말요,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뤼팽. “아니, 아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르셀린. “아, 그렇군요.”

뤼팽. “하지만 경찰이죠.”

마르셀린이 테이블 왼쪽으로 자리를 옮긴다. “세상에.”

담블발이 마레스코와 함께 들어온다. “이거, 대체 무슨 뜻이오?”

뤼팽은 마르셀린에게서 시선을 떼고 모델들의 문을 바라본 뒤, 시계를 확인하고 짜증 섞인 제스처를 취한다.

담블발. “당신은 누구요?”

뤼팽은 태연하게 대답한다. “바로 이분을 설명해 드리고 있었소. 층수를 잘못 들어왔을 뿐이오.”

그가 무대 뒤쪽으로 걸어가려 하지만, 차장이 길을 막는다.

담블발. “층수를 잘못 들어왔다고요? 여기 있는 사람은 다 알고 있어요. 당신의 이름은?”

뤼팽이 명함을 꺼내 건넨다. ‘호라스 도브리, 탐험가’.

담블발이 의심을 담아 묻는다. “탐험가?”

뤼팽이 고개를 끄덕였다.

“탐험가입니다. 파리를 지나가다 위쪽 친구를 만나러 온 거죠.”

딤블발이 눈을 동그랗게 떴다.

“위쪽? 지붕이요?”

뤼팽이 안으로 발을 들이려 했지만, 부서장은 막아섰다.

“내려가서 설명해 드리죠.”

부서장이 큰 소리로 말했다.

“먼저 이 분께 설명하세요.”

딤블발이 그의 팔을 잡았다.

“도대체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왔소?”

“걸어서요.”

“올라온 게 아니라, 어떻게 들어왔는지 묻는 거요.”

"문으로요."

"불가능해요. 문은 잠겨 있었거든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선생님. 그렇지 않으면……"(그는 딸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누군가 당신에게 문을 열어주었다고 추측할 수밖에 없어요. 언제였는지 알고 싶거든요. 이 집은 경비가 서 있었으니까요."

갑자기 딸을 향해 외쳤다.

"너, 대답해라. 너는 거기 있었잖아! 알고 있지?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대답해!"

"네, 맞아요, 아빠."

"아!"

잠시 침묵이 흘렀다. 단호한 어조로 덧붙였다.

"소방서장님, 이것은 경찰의 일이 아닌 가족 문제입니다. 하지만 너, 대답해라."

"아닙니다, 미스.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요."

그가 몸을 돌리며 말했다.

"이 명함에 적힌 이름은 제 이름이 아닙니다. 제 이름은 좀 더 스캔들을 불러일으키지만, 그건 제 방식대로 정직한 자의 이름입니다. 저는 이 두 분을 죽이는 편이 낫다고 생각할지언정, 한 여성에게 조금이라도 해를 끼치는 일은 결코 하지 않습니다."

그가 그녀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저는 미스에게 구애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분을 뵙고 나서부터는 다시 이곳, 디믈발로 돌아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설령 그 목적이 단지 그분과의 결혼을 청하기 위함이라 해도 말입니다."

보좌관이 다가와 물었다.

"그렇다면, 각하. 어떤 목적으로요?"

디믈발이 말했다.

"자, 마스코, 속지 마라. 나는 이 일이 경찰의 관할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래, 대체 뭘 원하는 거야?"

"아마도 목걸이를 가져오라고 하려는 건가?" 딴블발이 비웃으며 말했다.

"여기 있어. 탁자 위에."

뤼팽이 목걸이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뭐라고?"

보조장이 놀라 물었다.

딴블발이 다가갔다. "도둑놈!"

"감정 모르는 놈!"

"잠깐만. 경계 설명서에 붉은 수염을 기른 남자라고 되어 있는데."

뤼팽이 가짜 수염을 손으로 건드렸다. "수염이군."

"맞아, 바로 그 수염이야. 그런데 내가 배치해 둔 순경은?"

"아, 너무 지쳤나 봐. 잠자러 보냈지."

"도대체 넌 누구야?"

뤼팽이 명함을 하나 건넸다. "제발 단정하게 행동해라, 형사."

딴블발과 보조장이 명함을 받아 들고 읽었다.

"아르센 뤼팽!"

"뤼팽. — 신의 이름으로, 그렇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부지장은 복도 문까지 재빨리 달렸다. 뤼팽은 마르셀린 앞에 고개를 숙이더니, 급히 말했다.

"선생님, 지금 여기서 좀 거친 일이 벌어질 겁니다. 피도 흐를지도 모르고……. 보기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방 문을 열며 권했다.

"부디 들어오십시오."

"딴블발이 딸을 밀어냈다. "가!"

딸은 문턱에서 멈칫했다. 망설이다가 뤼팽을 보지 않은 척 지나쳐 나갔다. 뤼팽은 그녀의 뒤를 눈으로 좇았다. 그녀가 나간 자리였다.

"뤼팽이 딴블발을 향했다. "당신, 정말 이 아이의 친아버지 맞습니까?"

"딴블발. — 뭐라고요?"

"당신 같은 남자가 저런 딸의 아빠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뤼팽이 말을 맺자마자, 그는 갑자기 부하를 향해 몸을 돌렸다.

"이제 장난감 끝이야. 혼자서 온 건 아니지?"

그는 책상 위에 앉아 담배를 한 개 꺼내 물었다.

"지붕에 제복을 입은 놈들을 두 명 놔뒀습니다. 이 계단 아래에도 또 있습니다. 당신이 뤼팽이라면, 이 정도는 당연하죠. 파출소에도 이미 통보했습니다. 항복하세요."

"경비는 죽는다……."

뤼팽이 담배를 입에 물며 말했다.

"그건 그냥 예의 차원에서 하는 말일 뿐이지."

가니마르 부하가 권총을 겨눴다.

"항복하라고! 내가 말했잖아."

뤼팽은 권총을 바라보며 손짓으로 말했다.

"조금 더 오른쪽으로……. 그 정도……. 조금 더 높이!"

"장난하지 마라. 항복할 거냐?"

"물론이죠. 항상 그렇습니다."

보좌관. "무기 꺼내."

뤼팽이 분사총을 건넸다. 보좌관은 그 총을 힐끔 보지도 않고 재빨리 주머니에 넣었다.

뤼팽. "조심해. 장전돼 있어."

보좌관. “이제 따라와.”

뤼팽이 성냥을 하나 긁었다. 불꽃이 타올랐다.

뤼팽. “끝까지 따라오시죠.”

보좌관이 위협적으로 한 발짝 다가섰다.

뤼팽이 타오르는 성냥을 내밀었다.

뤼팽. “앞으로 한 발짝만 더 내딛는 자가 있으면, 나는 그놈의 머리를 태워버리겠소.”

보좌관. “그럼 운이 나쁘군! 쏴버리겠어.”

뤼팽. “쏘진 못할 걸.”

보좌관. “하나… 둘…”

뤼팽. “엄지.”

보좌관이 깜짝 놀라 물었다. “뭐?”

뤼팽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뤼팽. “엄지… 내가 말했지, 엄지라고… 그러니까… (무거운 어조로) 불행한 운명이 나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으니, 하나 해둘 말이 있소. 이 목걸이가 아직 여기, 이 테이블 위에 있다는 걸.”

딤프르발. “내 목걸이가…”

보좌관. “이봐, 대체…”

뤼팽. “죄송합니다. 엄지손가락이라고 했습니다. (딤펠발에게) 선생님, 이 목걸이가 제가 생각했던 대로 선생님의 소유가 아니라면…”

딤펠발. “브레브 공작부인에게서 샀습니다.”

뤼팽. “말도 안 되는 소리군요. 그 이야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그리 깨끗하지 않은 거래였죠. 어쨌든 저는 이 목걸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인물들이…”

차장. 단호하게. “이건 끝이 나쁠 거야! (다시 총을 겨눈다.)”

뤼팽. 큐피드 동상 뒤로 몸을 숨기며. “무기를 내려놓지 않으면, 깨뜨릴 거야.”

딤펠발. 당황한 채 차장 쪽으로 달려가며. “미쳤어요? 내 동상을 보세요!”

뤼팽. 대리석을 흔들며. “가자!”

딤펠발. “잠깐만요! 마스코, 이 남자를 놔두시오. 그는 목걸이를 돌려주었습니다.”

뤼팽은 모델실 입구 쪽으로 물러서 있었다.

"물론이지, 마레스코. 그런데 봐, 너 정말 바보야. 내가 정체를 드러낼 이유가 뭐 있겠어? 일은 이미 성공했거든."

그때 문에서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모델실 문에서 확실히 타격음이 들렸다.

"어라… 누가 두드리는군. reinforcements가 오고 있어. 말도 안 돼, 네가 공화국 근위대를 불렀나 보군. 내가 도와줄까? 우리 세 명이 힘을 합치면 어쩌면 해볼 만할지도 몰라."

그는 팔을 뒤로 돌렸다. 손에 열쇠가 들려 있는 것이 보였다. 그는 모델실 문 앞에 서서 전면에 위치했다.

소위.

"말은 그만하고… 수갑을 채워!"

뤼팽.

"아, 아니, 그건 좀 웃기군."

소위.

"도대체 뭐야?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뤼팽.

"존중이 필요해!"

소위.

"그게 다야?"

열쇠를 꽂기 시작하는 뤼팽.

"너와 나 사이에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거지."

보좌관. – 아니면요?

뤼팽. – 아니면, 나는 바로 떠날 거야.

그가 몸을 돌려 문을 열었다. 정복을 입은 경찰 두 명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바보들아, 내 길을 좀 비켜라!"

그들이 문을 밀어내자, 보좌관이 나타났다. 경찰들이 다시 문을 밀어 닫으려 했고, 뤼팽은 벽을 등진 채 구석으로 쫓겨났다.

보좌관, 터져 나오려는 웃음을 참으며. – 실패했군, 뤼팽! 이번엔 정말……

뤼팽, 운명을 받아들인 듯. – 맞아…… 나 잡혔어……

보좌관, 승리의 미소를 띠며. – 아하!

뤼팽. – 다만, 좀 예의를 갖추게. 조금은 정중하게.

보좌관, 경찰들에게. – 고마워, 친구들. 그럼 파출소에는 이미 연락했지?

경찰 중 한 명. – 네, 동료들이 대로 주변을 돌며 확인했어요. 형사들이 그들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보좌관, 딤흐발에게. – 가서 문을 열어주게.

"딴블발. – 가요, 가요… (그는 나가버리고, 경찰 두 명이 뤼팽을 끼고 섰다.)"

"차장, 뤼팽에게. – 꽤 잘됐잖아, 뤼팽?"

"뤼팽. – 고마워. 하지만 더 나은 게 있어."

"차장. – 뭐?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뤼팽. – 다 끝났지. 다 끝났다고. 어차피 감옥은 잠시뿐이잖아. 들어갔다 나가는 그 시간뿐이야."

"차장. – 그럼 일단 들어가는 걸로 시작하지 그래?"

"뤼팽, 웃으며. – 너 좀 불안해하네?"

"차장, 경찰 한 명에게. – 먼저 가서 마차를 한 대 불러. 우리가 곧 따라갈게."

"뤼팽. – 그럴 필요 없어. 내 차가 있어. 대로 끝자락에. 기사는 바티뇰의 에르네스트."

부서장이 뤼팽 쪽으로 달려들었다.

"자, 가자."

그가 등을 돌리는 순간, 뤼팽의 양옆에 섰던 두 경찰이 부서장의 팔을 꽉 잡았다. 부서장은 놀라 몸을 부비며 저항했다.

"뭐야? 이게 무슨 뜻이야?"

잠시 멈춰 선 그는 두 경찰을 보고, 다시 뤼팽을 바라보며 비명을 질렀다.

"천벌받으라, 동정들이군!"

그는 두 경찰을 거칠게 밀어내고, 뒤편 문으로 돌진했다.

"도와줘, 친구들아!"

문을 열자 현관에는 제복을 입은 여섯 명의 경찰이 단단히 준비하고 서 있었다. 그들 옆에는 리본으로 묶이고 입마개를 한 채 의자에 앉아 있던 딩블발과 보안국 요원들이 있었다. 부서장은 헛간소리를 내며 중얼거렸다.

"악당들아!"

뤼팽이 소개했다.

"제 개인 호위대요. 반사수사국 소속이죠. 얼굴이 다들 제법 괜찮지 않습니까?"

뤼팽이 손짓을 하자, 두 경찰관 중 한 명이 낡은 천으로 하급 간부를 묶어 꼼짝 못하게 했다.

뤼팽이 다른 경찰관에게 물었다.

"방금 전엔 나를 못 알아봤나?"

경찰관.

"아니요, 상사. 제가 새로 온 데다 어둠도 있었고……. 게다가 캐롤라인의 말로는, 우리도 당황할 줄 알았거든요."

뤼팽이 말했다. "머리가 붉은 놈이군, 그렇지? 내 탓이네."

그가 포로들을 향해 돌아섰다. "이제 물러날 때야. 정말 아름다운 광경이지! 만약 작은 스케치를 남길 수만 있다면."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기와 마그네슘 램프를 꺼냈다. 렌즈를 통해 피사체를 바라보며 고개를 기울였다.

"구도가 정말 아름답군… 완벽해." "마르스코, 표정 좀 가라앉혀. 그래, 친구, 생각에 잠긴 듯하네." "딤프르발, 살짝 웃어주게. 좋아, 이제 움직이지 마." "딸깍! 끝! 신문용 사진 한 장 완성!"

그때 문이 급히 열리며 제복을 입은 순경이 뛰어들어왔다. "경찰이다!"

순식간에 혼란이 일었다.

뤼팽은 매우 차분한 어조로 말했다.

"돌진! 모델실 계단으로, 질서 있게!"

경찰관들이 도망쳤다. 현관 문이 두드려졌다.

"마르스코, 가서 열어봐!"

그가 다시 외쳤다.

"들어오지 마라! 내 옷은 어디 있나? 마르스코, 내 헌 옷은 네가 어디다 뒀어?"

문은 다시 두드려졌다.

"잠깐만, 개자식아! 모자도 없이 나가라고 하려는 거야? 어이, 너 작은 코트 하나쯤은 있겠지."

그가 코트를 하나 찾아냈다.

"아, 바로 이거다! 고마워! 번거럽게 하지 마."

모델실 문으로 제복을 입은 동료가 하나 들어왔다.

"수석님, 자동차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나 곧 갈게."

뤼팽이 고개를 숙이고 나가자, 감금된 사람들은 사슬을 끊어내려 안간힘을 썼다. 하지만 그들의 몸은 단단히 묶여 있었다.

잠시 후, 뤼팽이 무언가를 깜빡했나 싶다는 듯 다시 돌아왔다. 그는 차분하게 디믈발의 주머니에 손을 넣어 목걸이를 꺼냈다.

"이제 네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군. 보아라, 남의 것을 잘못 가져온 보물은 내게만 이익이 되지……."

그가 다시 나가려던 찰나였다. 마레스코가 간신히 한 팔을 풀어내더니, 뤼팽이 전에 주었던 분무기 권총을 겨누고 방아쇠를 당겼다.

"받아라, 개자식!"

"아, 고마워! 한 잔 더! 이 향기가 정말 좋아. 카롤리나의 향기잖아. 나중에 또 봐! 선생, 원한은 없죠? 속으로는 당신을 꽤 좋아하거든요."

그가 나가자, 차장 주임과 딤블발이 벌떡 일어났다. 그들은 반쯤 묶이고 반쯤 입이 막힌 상태였다. 두 사람은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쳤고, 큐피드 동상은 넘어져 있었다.

딤블발이 차장 주임을 잡아끌며 소리쳤다.

"내 동상! 큐피드! 바보야! 미련한 놈!"